



창업 2년만에 첫제품 「팩스맨」으로 행운을 잡은 (주)새롬기술. 과학기술원 인공지능센터 연구원 경력의 吳尙洙사장은 올 하반기 선보일 새제품 「새롬세계로」개발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지고 있다.

## 「팩스맨」 개발로 통신전문업 개척 (주)새롬기술



◀ 바람직한 기업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오상수사장

“이젠 40명의 식구를 책임져야 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창업한지 2년만에 자신이 일궈낸 업적이 믿기지 않는지 주식회사 새롬기술의 吳尙洙사장은 통신전문업체라고 불러주는 주위의 평에도 당혹스러워 했다.

### 국내 소비량 70~80만대

(주)새롬기술은 서울대 공대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오사장은 몇몇 친구와 함께 뚜렷한 아이템과 계획없이 진행중이던 연구과제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첫제품인 ‘팩스맨’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다. ‘팩스

맨’은 윈도우환경 하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고 편하게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팩스소프트웨어. 국내 팩스모뎀 소비량만 해도 70~80만개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라 언제 누구에 의해서건 개발되어야 할 제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라고 오사장은 설명했다. 새롬기술은 이 제품개발로 많은 외화를 절약한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DSP지원제품’ 또한 삼보와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순항하게 되었다.

DSP는 디지털 신호처리기로 음성, 화상, 사운드 등과 같은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한 후 이를 다시 아날로그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단지 하나의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화상, 통신 등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해 기존의 팩스카드, 사운드카드, 오버레이카드 등 여러가지 카드를 단 하나의 카드로 수행할 수 있다.

### 부설연구소도 설치

이러한 DSP용 프로그램 개발로 (주)새롬기술은 새내기 같았던 이미지를 벗고 정보서비스개발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차칫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면 좋은 아이템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

무리 좋은 아이템과 기술이 있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일반업무와 연구개발을 이원화하기 위해 사내 부설연구소를 두기로 했다는 오사장.

또 다른 부설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병역특례를 두어 회사 운영에서 가장 힘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국내 최고의 멀티미디어 통합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는 첫 작업이라고.

(주)새롭기술은 멀티미디어 통신응용 기술, 네트워크 응용기술,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융합하여 소형화, 개방화, 분산협조화를 지원하는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 「새롭세계로」 매출 30억 목표

한편 올 하반기에 선보이게 될 제품은 「새롭세계로」. 매출액 30억을 목표로 할 정도로 사운을 건 「새롭세계로」는 (주)새롭기술의 야심찬 기획상품이다. 팩스와 페이지, 전화,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와 함께 국내의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에이텔 등의 대형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해 전 세계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최고의 통신 네트워크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통신망 인터넷, 이 모든 통신 매체를 PC에서 자유롭게 사용, 활용할 수 있는 팩스맨 프로, 데이터맨 프로, 아울러 개인과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텔레맨이 「새롭세계로」에 들어있다.

이중 「팩스맨 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메일을 주고 받고, 팩스주고 받기, 전화 자동응답하기, 일반 데이터화일 받기, 삐삐 호출하기의 기능을 단일 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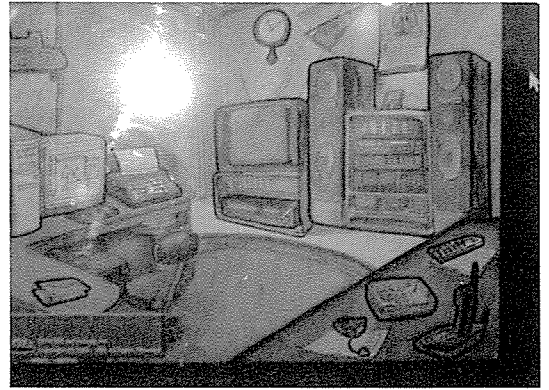
페이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프로그램이다.

또 하나 「데이터맨 프로」는 기존의 시리얼 모뎀 통신(천리안, 하이텔, 나우컴 등의 국내 대형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설 비비에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윈도우즈상에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것)환경을 지원하고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맨 프로」는 1993년부터 폭발적으로 사용이 급증한 인터넷을 대표하는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W.W)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했고, 사용자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인터랜드 서버를 추가로 개발했다.

또한 이 제품엔 ‘텔넷(telnet)’이라는 프로토콜 인터넷에 연결된 대부분의 컴퓨터가 지원하고 있고 데이터맨 프로그램은 인터넷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텔넷’ 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맨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집에서 회사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숙제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텔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사장은 설명한다.

「데이터맨 프로」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트워크상에서 화일 전송의 표준으로 정착된 FTP기능과 수십만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과 전자편지를 교환할 수 있는 E-mail기능이 지원된다. 이로써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를 단일통신 환경상에서 구해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데



▲「새롭세계로」로 들어가는 그래픽 화면

이터맨 프로」는 혁신적인 멀티세션이 지원돼 인터넷, 텔넷, FTP의 모든 기능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개의 윈도우를 열어 놓고도 사용 가능하다.

###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노력

금년 1월에 개발하기 시작한 이 제품이 출시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런 기능은 최초가 될 것이라고 오사장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이외에도 「텔레맨」은 마이크와 스피커와 모뎀이 장착된 PC상에서 GUI를 통해 간편한 다이얼링, 전화번호부 참조 다이얼링, 핸드셋 및 마이크/스피커를 이용한 통화를 지원하는 다이얼러 소프트웨어이다.

“통신은 생활입니다. 컴퓨터 관련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요구될수록 저희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더욱 전문화되고 필수적인 기술을 거대 규모로 파고들어 저희와 같은 소규모로는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따로 세울 형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기술로 소비자에게 선보일겁니다” 오사장은 아직 사회환원이라는 차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바람직한 기업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